

아스널
<승점 67점·3위>토트넘
<승점 66점·4위>뉴캐슬
<승점 65점·5위>

아스널·토트넘·뉴캐슬 ‘첼시공포’

EPL 6위 첼시, 챔스리그 우승때 4위 팀은 침출권 박탈
마지막 라운드 3위 확보 위해 사활건 경쟁…아스널 가장 유리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 토트넘, 뉴캐슬에게는 첼시가 저승사자다. 이들 3팀이 ‘첼시파이어’에 사로잡힌 이유는 바로 2012~2013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EPL에서는 1~3위까지 유럽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티켓이 주어지고 4위는 예선전 진출 티켓이 부여된다. 최종라운드가 끝나봐야 하겠지만 1·2위는 맨시티와 맨유의 차지다. 남은 티켓은 3위와 4위에게 주어지는 2장의 진출권이다.

첼시도 유럽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 9일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11~201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에서 1대4로 졌다. 주전 선수들을 대거 뺏다. 웹파인스리그 결승전에 대

비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기용이었다. 1경기 남겨놓은 상황에서 5위 뉴캐슬과의 승점차는 4점. 따라서 6위 자리로 확정했다. 다음시즌 웹파인스리그 티켓은 이미 날아간 상황이 됐다.

하지만 한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20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2011~2012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다. 단판 승부로 결승전에서 우승한다면 팀파인 자격으로 다음 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 지난 2004~2005시즌 리버풀이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고도 리그 5위에 그쳐 특별규정이 만들어졌다. 이 규정의 핵심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EPL 상위팀에게는 ‘무서운’ 옵션이 있다. 올 시즌의 경우 첼시가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경우, EPL 4위가 진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3·4·5위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3팀은 비상이다. 첼시의 우승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사력을 다해 3위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스널이 승점 67로 3위, 토트넘이 66으로 4위, 뉴캐슬이 65로 5위에 올라있다. 마지막 라운드 결과로 3위 자리는 알마디는 바뀔 수 있다.

마지막 라운드 대진표상으로는 아스널이 유리한 고지를 접하고 있다. 약체 웨스트브로미치와 상대한다. 하지만 원정경기라는 점이 변수다. 토트넘은 풀럼과 만난다. 런던 내 라이벌이다. 풀럼은 꿀그립다. 이기고 아스널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만 한다.

뉴캐슬의 상황은 무척 어렵다. 에버턴과 원정경기를 치른다. 에버턴 원정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았다. 이기고나 뛰어스널과 토트넘이 패배하기를 바라야 한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여자농구·축구도 개인연금 납부 지원 혜택

프로 스포츠 종목 선수들에 대한 개인연금 납부 지원 혜택이 여자농구와 축구로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조작을 막기 위한 ‘공정·투명 스포츠환경 조성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여자프로농구와 프로축구 선수들

이 개인연금 납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선수들이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60만원까지 해당 종목 단체 등을 통해 자신이 낸 만큼의 납부액을 지원받는다.

자신이 매월 5만원을 내면 추가로 5만원

을 더 내주는 방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야구와 배구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종목 단체에는 불입액의 일부를 스포츠토悠수익금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공정·투명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19개 세부 대책 가운데 연금지원을 포함한 5개 과제를 완료했다며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나머지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화부 관계자는 “야구와 배구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종목 단체에는 불입액의 일부를 스포츠토悠수익금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공정·투명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19개 세부 대책 가운데 연금지원을 포함한 5개 과제를 완료했다며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나머지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년만에 우승 “이맛이야”

2년 만에 유로파리그 정상을 탈환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AT마드리드 유로파리그 우승

팔카오 2골 맹활약 빌바오 3대 0 꺾어

스페인 클럽 간 대결로 펼쳐진 유로파리그 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아틀레티코(AT)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빌바오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AT 마드리드는 10일(한국시각)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스타디오루 나치오날 아레나에서 열린 2011-2012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골잡이 라다멜 팔카오(콜롬비아)의 특급 활약을 앞세워 빌바오를 3-0으로 놀렸다. 이로써 AT 마드리드는 2009-2010시즌 UEFA컵이 유로파리그로 바뀌고 첫 우승을 한 지 2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았다.

우승상금으로 900만 달러(약 103억원)를 거머쥐고 UEFA 슈퍼컵에서 웹파인스리그 우승팀과 대결할 자격을 얻었다.

AT 마드리드의 우승을 이끈 일등 공신은

이탈리아 인터 밀란으로 떠난 디에고 포를란의 후임으로 들어온 공격수 팔카오였다.

팔카오는 전반 7분 상대 문전에서 수비수들이 춤을 출하니 포진한 상황에서 선제골을

꽂아 넣은 데 이어 전반 34분 두 번째 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후반 들어서도 빌바오가 좀처럼 만회골을 터뜨리지 못한 상황에서 AT 마드리드는 후반 40분쯤 나온 디에구의 마무리 꼴로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23골을 넣은 팔카오는 유로파리그에서 12득점을 올리고 팀 우승을 경험하면서 득점왕에 올랐다.

팔카오는 지난 시즌 FC포르투에서 뛰면서 유로파리그 우승과 득점왕(18골)을 차지한 데 이어 두 시즌 연속으로 같은 영광을 누렸다.

전국 궁사들의 경연

남여양궁종별선수권 개막

전국 궁사들의 경연인 제46회 전국 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가 10~17일까지 청주 김수녕 양궁장에서 열린다.

종합부(10~12일), 고등부(12~14일), 대학·일반부(15~17일)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총 183팀, 787명이 참가한다.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불참한다.

또 고등부와 일반대학부로 구성되는 컵과 운드 종목에는 총 30팀, 53명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잔고 증명 전문

사회복지법인설립 / 국가예산지원신청
노인·장애인·평생교육원·대학인·재단법인·사단법인·설립서류 전문!

각종증명 | 통장사본 필요하신분

C 061-373-4624, 010-8254-5003

와이 T.010-3632-7382

▲광주한빛봉산학회 국제학술대회 제주도 옥외체육관(5시간) 5월 26일(토)~27일(일) 10시~17시 30분 열려

▲남도산시화 5월